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11. Vol 261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가을에 나는 운다

가을이 울음 우는 것은
붉은 노을빛 물든
바람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흔들리는 것은
하얀 그리움 물든
달빛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주름진 얼굴에 하늘이 머문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길
눈물로 적시는
상처투성이 이파리 물든다

어차피 울음도 버려야 할 것을
새 조차 날지 않는다
지는 가을 바람결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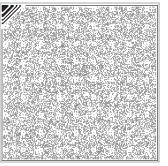
이런 날이면
사람이 시리도록 그림다
깊은 가을 슬픔을 삼킨다

가을에 나는 운다



김 희 식

- 84년 분단시대 문학동인 창립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역임
- 시집 「유월의 거리에 서서」, 「2007, 고두미」
- (현)충북문화재단 근무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11. Vol 261

Contents



배론성지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에 위치한 배론성지는 2001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118호에 지정돼 한국 교회 최초로 성요셉 신학교가 세워진 곳으로 한국천주교의 산 실로 불린다.

- 04 | 제376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인사청문회 도입·충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 08 | 청주공항 활성화·미세먼지 대책 특위 활동
- 09 | 성평등·청년정책 토론회
- 10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토론회
- 11 | 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 12 | 의원연구활동
 - 충북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회·노동정책연구회 활동
- 13 | 국제교류
 - 중국 지린성·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14 |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20 | 5분 자유발언
- 22 | 제376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의원논단·의정일기
- 30 | 건강상식

- 발 행 일 : 2019년 11월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제376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충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정책 토론회·민생 조례 의결 등 도정현안 해결 집중 조례안 18건·동의안 9건 등 총 28건 의안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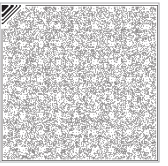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간담회’, ‘미세먼지 대책관련 현장 점검’,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토론회’, ‘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청년정책 토론회’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최 첫날인 10월 16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정 의원은 ‘충북도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를 주제로 “충북도가 GMO 배제 공식 선언과 관련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고, 최경천 의원은 ‘자치연수원을 충북도민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를 주제로 “자치연수원이 청년·도민의 교육·문화생활 공간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연종석 의원은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주제로 “충북 대표도서관 지정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지원 확대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 제376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소관부서에 대해 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개회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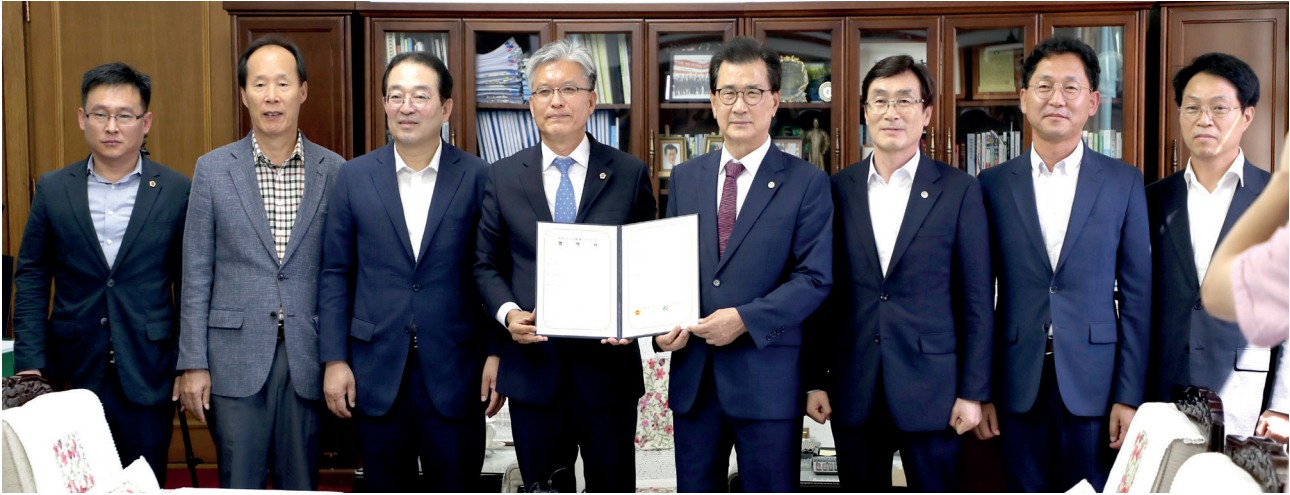
또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12건의 안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오영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업계고 학과개편, 신중히 접근할 것’ 등을 주제로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충북도의회 역사상 처음 열린 충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11월 정례회는 본격적인 행정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서 체결

도 산하 4개 기관장 대상... 도덕성·책임성·투명성 효과 기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의원들이 9월 17일 도지사실에서 이시중 도지사와 함께 충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충북도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한데 이어 협약을 체결했다.

장선배 의장은 9월 17일 이시중 충북도지사와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며, 추후 청문회 결과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형식으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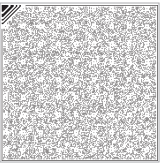
인사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맡게되며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와 송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수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9월 15일 장선배 의장과 황규철·심기보 부의장, 김영주 운영위원장, 박성원 의원이 이시중 도지사를 만나 협의한 끝에 청문회 기관 선정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제 도입에 응해 주신 이시중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 신임 사장 대상 첫 인사청문회 실시

전문성·도덕성·정책능력 등 자질여부 집중 질의



충북도의회는 10월 1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도덕성·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소신 등을 집중 질의했다.

충청북도의회가 10월 1일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지난 9월 17일 충북도산하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인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는 충북도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신임 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보고를 들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개인경력, 병역, 부동산, 세금납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다.

이어 공개회의로 전문성 및 정책분야, 사업 및 조직관리, 재무건전성, 사회적 책임, 균형발전 등에 대해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사장 후보자에게 충북개발공사 경영에 대한 소신과 포부, 개발공사 비전과 조직 내 갈등관리 방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수익의 70% 이상이 산업단지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공사 구조상 부채율 증가가 예상된다고 질문하며 향후 수익구조 다변화 및 사업비 절감 계획은 무엇인

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취지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에 따른 공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자세는 돼 있는지, 경영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먹거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에도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첫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수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인신공격, 흠집대기가 아닌 인물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정책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도지사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공사의 경영합리화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도 “이번 인사청문회가 준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적극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결과를 집약하여 충북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간담회 실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 방안 등 집중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0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 충북연구원, 관계 공무원등 30여명이 참석해 기관별 지원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기존 관광 상품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증진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방안과 지역관광 상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국제공항과 지역관광의 상생 발전방안도 구체화 하는 등 다양한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해결 선제적 대응

도내기업 배출 사업장·미세먼지 측정망 시설 등 현장점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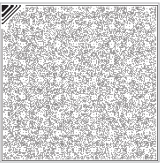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영) 의원들이 10월 24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날 특위는 LG화학 청주공장과 나투라페이퍼(주) 등 도내기업 2곳과 청주 오송읍사무소 별관에 설치된 미세먼지측정망을 방문해 시설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세먼지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LG화학 청주공장과 나투라페이퍼(주)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저감장치 현대화 등의 환경시설 투자를 대폭 늘리고 겨울철에는 가동율을 적극 조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들은 “도의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특위는 지난 6월 제373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관련 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책복지위,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여성안전 및 인권보장 제도마련 · 민간기업 참여 독려 제안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5일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0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육미선 의원이 기획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돈·이상

옥·이옥규 도의원과 여성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김학실 충북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조혜경 성인지 정책연구소 모든 대표, 한영숙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장,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장우정 풀뿌리 소모임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이정희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육미선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혜경 대표는 주제발표(주제 :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민관협력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성평등·폭력예방교육 확대 운영 등이 제안됐다.

충청북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일자리·청년복지·청년 놀이문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직장인, 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0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직장인, 대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제안

사항을 도출해 이를 충북의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을 삶의 주체, 정책의 기획자로 보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 즉, 문화를 포함한 삶 전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 지원보다 청년육구에 맞춘 일자리 발굴·제공 △중소기업 및 계약직 청년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지원 △취·창업정보 획득 및 청년 스터디모임 등을 위한 공간 조성, △청년수당(교통비·의료비·학습비·문화비) 등 지원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직장내 아빠 육아휴직 인식개선, 청년 기획·주도 문화사업 추진 △도 차원의 청년문화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청년 문화 활동 공간조성 등이 제시됐다.

행정문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제도 강화·입주자 피해보상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24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24일 충청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공무원, 공동주택 관계자, 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대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옥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서병량 환경관리공단 생활환경안전처 과장과 조운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장이 각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분석 결과 및 갈등 해소 방안'과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강규수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남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법제위원장, 김기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북지부장,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이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서병량 환경관리공단 생활환경안전처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층간소음의 범위·기준 등을 설명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동 내역과 함께 민원분석 결과 및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조운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추진된 층간 소음제도를 설명하고 충청북도 층간 소음방지 계획으로 시공관리 강화, 주

민 자율해결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조팀장은 개선방안으로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강화 △준공 신청 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측정 방안 도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자 및 시행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규수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방음 부실건물에 대한 시공사 페널티 및 공동주택소음 주의에 대한 공익광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법제위원장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령이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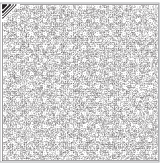
김기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북지부장은 입주민들 간의 대화 및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매트와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아파트단지 축제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방청에 참여한 허창원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 전에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급,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지원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층간소음 교육 등이 강조됐다.

이옥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토론회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도출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토론회

헬기정비 관련 업체 집적화한 혼합형 정비단지 조성 등 모색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8일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활용 및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발전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10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충북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 및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의 항공정비산업(MRO) 단지로 추진됐다가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좌초됐던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박우양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윤치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의 주제발표(주제: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여건과 추진방향)에 이어 최세종 한서대학교 항공정비학과 교수, 유희준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 교수,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장,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배명식 충청일보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윤치호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주에어로폴리스의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향후 사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부지활용 가능방안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항공정비 관련 업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활용 가능 방안을 △회전익 정비단지 △고정익 정비단지 △회전익 단지와 일부 유보지를 남겨둔 혼합형 단지 △F-35 전투기 정비창 △청주국제공항 확장에 대비한 용지 활용 유보 등 5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윤부장은 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방안은 혼합형 단지로 이곳에 헬기정비 관련 업체를 집적화해 정비단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헬기 정비업체의 수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고정익과 비교해 소음 등의 민원 소지도 적고, 향후 에어로-K 부지소요도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세종 교수는 "청주는 항공기 정비를 하기에는 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체 및 엔진이 대규모인 고정익보다는 크기가 작아 소규모 부지에 조성이 가능한

회전익 정비단지가 청주에 더 적합하다"며 혼합형 단지에 힘을 실었다.

유희준 교수는 "현재 노후된 헬기가 대다수이고 향후 국방부가 군용헬기 정비를 민간외주로 전환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정비가 많은 고정익과 달리 이동거리에 제한이 있는 회전익은 국내 정비가 필요하며 국토의 중심인 청주지역이 최상"이라며 헬기정비업체 유치의 장점을 강조했다.

최상천 본부장은 "항공 MRO산업은 항공기 유지 보수 및 개조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제조업 관련 산업으로 시장성과 성장성이 매우 높아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첨단산업이어서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며 MRO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태제 이사장은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정보공유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배명식 부장은 "혼합형 단지 계획이 적절하지만 고정익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사업 추진 시 충북도에서도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문희 의원은 "헬기정비 단지로 방향이 굳어진 후에 토론회가 개최된 것 같다 아쉽다"며 "에어로-K와의 빠른 협의와 더불어 청주에어로폴리스가 하루 빨리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충북고령화친화도시조성연구회, 선진지역 부산시 견학

노인일자리·고령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정보 공유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회'는 10월 24일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부산시를 방문해 정보를 공유했다.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회' 윤남진·육미선·송미애·하유정·전원표 의원(왼쪽부터)은 10월 24일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선진지역인 부산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후 2018년까지는 제1기 사업을 진행하다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고령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제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를 견학한 위원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조례 제정, 고령친화사업 발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흡한 충북의 군 단위 농촌에서는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도의원 공동발의로 충북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가이드라인을 구성해 향후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해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도의회 노동정책연구회, 노동문제 연구·해결 본격화

서울시 노동정책 우수사례 현장학습 등 다각 노력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노동정책연구회'는 9월 30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 조사관과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시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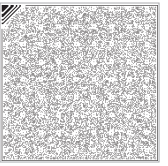
충북도의회 노동정책연구회가 충북도 노동정책 연구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상정·이숙애·박성원·육미선·박형용·최경천 의원(왼쪽부터)은 지난 9월 30일 충북도

노동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 조사관과 전담부서가 함께 있는 서울시를 방문했다.

이날 서울시를 방문한 노동정책연구회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 서울노사정보모델협의회 등과 잇따라 노동 관련 간담회를 연 뒤 벤치마킹을 마치고 “충북도의 노동관련 조례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노동조사관 및 노동전담부서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활임금이 높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서울시 사례를 꼼꼼히 살펴 충북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정 의원은 “조례 명칭을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해놓은 점과 산하 출연기관에 노동 이사제를 적용한 서울시 사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충북도 노동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도의회, 지린성·헤이룽장성 인대와 교류확대 본격 도모

중국 현지방문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 상호협력 합의

지린성 인대와 정기노선 개설·기업 교류확대 등 논의



심기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국 지린성 인대를 방문해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해 국제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심기

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박상돈·이숙애 위원장, 윤남진·김기창·이의영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를 공식 방문했다.

대표단 일행은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실에서 하동평 부주임과 회견을 갖고 양 도·성의 현안사업 교류확대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심기보 부의장은 △청주국제공항~장춘공항 간 정기노선 개설 △동북아박람회 참석 충북기업 적극지원△ 청주에서 개최되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인대위원 참석 등의 상호 협력방안 제안했다.

이에 하동평 부주임은 “지린성 인대에서 적극 노력·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양 지역 경제·무역교류(특히 바이오·의약분야), 장춘~지린~두만강합작지구에 충북기업 투자 등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기보 부의장은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이룽장성 인대와 무역박람회 충북 기업 참가·정기노선 확대 등 논의



장선배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인대를 방문해 청주~하얼빈 정기노선 확대 등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장선배 의장을 단장으로 전원표·이수완 위원장, 최경천·육미선·오영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중국 헤이룽장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헤이룽장성 인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하얼빈에 도착한 도의회 대표단은 헤이룽장성 인대 인웨이성 주임과 판홍 부주임 만나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회견에서 장선배 의장은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충북기업 참가 시 적극적인 협조·지원 △2020 중국유학생 페스티벌 개막식에 헤이룽장성 인대 주임·부주임 참석 △청주~하얼빈 항공 정기노선 운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판홍 부주임은 “양 기관이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두 지역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장선배 의장은 “두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01년 10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를 쌓아왔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운영위는 먼저,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둘째,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과 관련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충청북도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이다.

셋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375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오영탁 의원을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려는 내용으로 원활한 감사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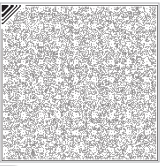
넷째와 다섯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의안이다.

서류제출 요구의 세부 내용은 2019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등 의회사무처 사무전반에 관한 29건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서류제출 요구자료 외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당일 출석요구 할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각 수석 전문위원 등 8명이며, 각 수석 전문위원들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감안하여 출석과 답변에 대해 유연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등 현안 심의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 위원회 열어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는 최근 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 사업,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또,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 기관별 법률, 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근거와 해당기관의 역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출연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심사에서 박상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377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및 현장점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도민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사용료의 징수)의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했던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17일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검진센터 개·보수 방향과 장애인친화형 검진센터 증축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현장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증축 시 반영돼야 할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중인 충북선수단을 응원·격려했다.

이어, 10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을 초청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공동주택소음 주의에 대한 공익광고의 필요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입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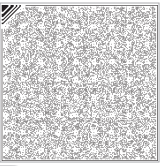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7일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상태와 증축 필요성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4차 산업·ICT산업 등 신산업 대응·육성 촉구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제37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각종 기관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한 후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10월 17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면밀하고 세심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의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 및 ICT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대응·육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1등 경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괴산군에 위치한 충청북도수산물식품거점단지와 유

기농업연구소, 유기토마토 재배 농가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수산물식품거점단지에서는 시설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고 거점단지가 내수면어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시설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들을 점검한 후 유기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며 충북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유기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충북 유기농업의 현주소와 실제 유기농업을 짓고 있는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MRO) 단지로 추진됐다가 아시안항공의 사업포기로 좌초됐던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대한 활용·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1회 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촉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조례안」,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각종 사고·재난 현장에서 수시로 위협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도 해야 하며 저감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적을 평가

해 계획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회의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사용 장려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는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바이오산업육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출연금 중 신규 출연금은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여 추진돼야 하고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이 남부권·북부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22일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바이오산업육출연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충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과 현안을 협의했다.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황규철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가 보완하고자 발의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안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투명성을 강화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했다. 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표창 수여 대상을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고 표창의 종류 및 명칭을 단순화하여 표창의 품격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을 공동 학교군(구)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



이 상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된장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GMO의 문제에 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입니다.

세계적인 곡물메이저들이 대량생산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제초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생산 및 수확하고 있습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GMO 수입국가

이면서, GMO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아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된장 GMO를 퇴출시킨 것처럼 non-GMO 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시스템 구축과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센터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계 1위의 GMO 수입국, 그럼에도 GMO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GMO를 거부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치연수원을 도민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



최 경 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의 청년정책 및 도민을 위한 교육·여가 문화 관련 지원 예산과 활용 가능 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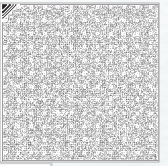
따라서,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청년과 도민의 교육·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의 가족공동체 문제와 청년실업, 청년인구의 지역 외 유출, 특히 걱정과 스트레스로 삶의 재미를 잃어가는 노년층 충북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자치연수원을 우리 청년들과 도민을 포함한 교육 및 여가활용 등을 위한 다

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도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 콘텐츠(볼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 발굴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치연수원 공간에 청년들과 도민의 평생학습과 여가·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모의 시설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인구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연 종 석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지역의 도서관들이 과연 충북도민들의 문화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심

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교육도서관과 학생회관, 교육문화원이 있고 보은군·괴산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시·군립도서관 30개 등 45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은군·괴산군 또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전 시·군의 시·군립 도서관 보유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반영 예정인 도비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비’ 8520만원과 ‘작은 도서관 지원비’ 4500만원 등 총 1억3020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도비보조율이 각각 20%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도서관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714개의 작은 도서관이 한 해 동안 휴관·폐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68개관이 휴관·폐관하는 등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북 대표도서관 지정,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지원 확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직업계고 학과개편, 신중하게 접근해야”



오 영 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금년 1월 교육부에서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해 2022년도까지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직업계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지역산업 연계 운영체제를 통한 학과개편으로 금년도 영동인터넷고·현도정보고가 교명을 변경했고 충북공고·충북상업정보고·제천상고·영동인터넷고에서는 학과를 개편

했습니다.

지역사회-지역산업이 연계되고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취업과 연계하고 자체정책을 유도해 지역학교 출신들이 학력으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화를 고려해 수도권 인근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고 유사한 학과로 개편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대규모 신입생 미달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배려와 신중한 정책추진을 주문합니다.

제376회 임시회 주요 처리 의안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박형용 의원)

[제안이유]

-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
-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및 도민의 책무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인구정책 추진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징수)의 단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포괄적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징수)의 단서 삭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제안이유]

- 충북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규정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
- 사업 추진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경비보조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제안이유]

-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보건 관리
-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기회 개최일정 및 방법 조정
 - 정기회 회의 일정 : 매년 6월, 12월 → 연 2회
 - 방법 : 후단 신설(긴급·경미 안건은 서면 의결)
- 유효기간 연장
 - 2019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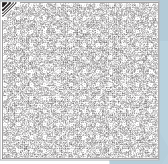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저감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1회용품 사용 저감 사항 규정
-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성원 의원)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교육감 등의 책무 사항 신설
- 적용범위 확대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
-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구역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박성원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구역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구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적용범위를 규정함
- 정책연구구역 관리원칙
-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구역 종합계획 수립
- 정책연구구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 정책연구구역 진행상황 점검
- 정책연구구역 결과에 대한 평가·공개·활용·관리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1번지 일원
 -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1.
 - － 규 모 : 연면적 3,760㎡(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면적 7,817㎡ 등
- 충북소방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0번지 일원
 - － 사업기간 : 2019. 11. ~ 2021. 2.
 - － 규 모 : 800㎡(1개동, 지상2층), 부지면적 5,268㎡ 등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의영 의원)

[제안이유]

- 조례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용어정의 추가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
- 정보공개 신설
-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 만족도 조사 신설
-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신설
-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신설
-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신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연종석 의원)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 도시사의 책무를 규정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평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학생근로활동”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생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방학동안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생근로활동”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생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 제고
- 대상자의 범위를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4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650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37,971천원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 울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강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운영의 내실화
-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등), 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성과급 등 지원

2020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 2,950백만원
- 맞춤형 융합 세포치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00백만원
-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지원 : 50백만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50백만원
-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 1,000백만원
- 바이오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480백만원 등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
 - 규모 : 4,781.04㎡(증축 4,199.42㎡, 개보수 581.62㎡)
 - 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도별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규약」에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 준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제4항 신설 공동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회장은 공동 사업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 400백만원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 400백만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 250백만원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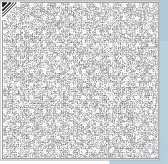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 기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 불명확한 조문 정비

[주요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시 경미한 변경범위 신설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 등 완화를 위해 부채납할 수 있는 대상시설 신설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종류 신설
-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용어 수정
- 불명확한 조문 정비 등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구분(보조율)	2018년(A)	2019년(B)	2020년(C)
도비(100%)	1,117,206	1,204,948	1,204,948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변경
- 전자우편 ID 발급 조항 삭제
-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항목의 변경 및 추가
- 전자민원 창구 운영 항목의 추가
- 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항목의 변경

충청북도 중학교 학구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20. 3월 신설되는 (가칭)대소원2중학교 지정사항 반영
-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을 공동학교군(구)로 조정

[주요내용]

- 2020. 3월 (가칭)대소원2중학교 신설에 따라 충주시 학교군인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장성리와 주덕중학구인 대소원면 영평리, 대소리, 금곡리를 (가칭)대소원2중학구로 변경
- 중앙탑면 누암리, 창동리, 봉황리, 가흥리, 장전리, 용전리, 탑평리, 하구암리(묘곡·중구)를 중앙탑중학구와 양성중학구 공동학교에서 노은중학구와 중앙탑중학구, 양성중학구 공동학교로 조정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표창 수여 대상을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고, 표창의 종류 및 명칭을 단순화하여 표창의 품격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맞는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표창 업무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표창 수여 대상 확대 : 개인 또는 기관·단체 → 개인 또는 기관·단체, 동·식물 및 구조물 등
- 표창의 종류 및 명칭 단순화 :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 표창장, 상장, 감사장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 2천원 미만 면제 → 5천원 미만 면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충북교육 구성원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셜미디어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셜미디어 교육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희망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수용이 가능함
- 2016. 3. 1.자 산업체 특별학급 폐급 후 3년 간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어「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폐지함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란 다음에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의 예시로 ‘조리, 제과·제빵’을 추가 등
-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 조정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 중 입시, 보충학습, 논술 교습과정을 입시와 보충학습, 논술 교습과정으로 구분 신설 등



충북도의회는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하반기 의원연찬회를 갖고 “독도는 소중한 우리영토! 충청북도의회가 함께 합니다!”를 외치며 영토 주권 수호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청주시 지역구 의원들이 10월 25일 청주시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업들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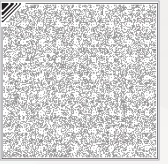
장선배 의장은 9월 20일 충북도의회를 예방한 중국 헤이룽장성 청년연합회와 충북지구 JC 대표단에게 양도·성간의 가교연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의원들은 9월 9일 청주시 서원구 현대코아빌에서 실시된 '충북청년희망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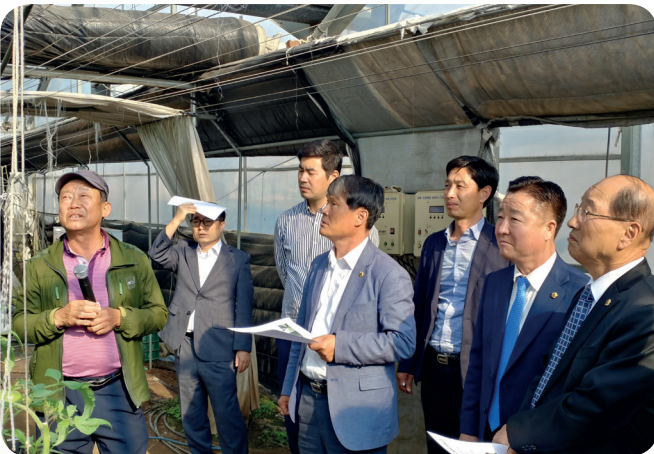
충북도의회는 장선배 의장과 의원들은 9월 9일 청주시 소재 원마루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체 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8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북 선수단을 방문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응원·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괴산군에 위치한 유기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황설명을 듣고 관련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0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천 산업고·금천고 경기를 관람하고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노고를 격려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사무처직원들은 9월 10일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영동군의 과수농가를 방문해 떨어진 배를 수거했다.



이 숙 애 의원
(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북도의회 독도 탐방기

충북도의회 하반기 연찬회는 1박2일, 장소는 독도로 결정되었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일본의 도발로 인한 한일 경색 국면에서 충북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가 독도에 다녀오는 것은 상징적이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0월 21일 새벽 5시 도청 서문에 집합한 일행은 울릉도행 배를 타기 위해 포항으로 출발했다. 새벽길 휴게소에 들러 간단한 아침식사 후 다시 출발한 일행은 김영주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홀로아리랑’을 반복하여 연습했다.

독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배 멀미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우리 일행들 또한 배 멀미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했다. 사무처의 준비물엔 1인당 두 알씩의 멀미약이 구비되어 있었고, 승선하기 1시간 전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규칙은 모두들 착실히 지켰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4시간은 대형 페리호를 이용하여 별 무리 없이 도착했다. 그러나 멀미약은 하루 종일 일행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고, 독도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에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졸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특강이 끝난 뒤 급하게 울릉도를 한 바퀴 돌기 위한 계획은 넘어가는 해를 잡을 수 없어 수포로 돌아갔다. 나리분지와 도동항 이외에 컴컴한 바다만 바라봐야했던 일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와중에도 구불진 언덕길과 좁은 골목길을 교행하는 기사님의 운전 실력은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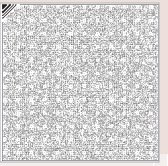
드디어 독도에 입도하는 날이다. ‘전 날은 장판 날씨(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였는데 오늘은 1m 정도의 파도 때문에 독도에 접안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기사님의 안내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6시 40분 숙소 출발, 7시 20분 배로 독도를 향하는 두 시간 동안 파도는 사정없이 뱃머리를 향해 부딪쳐 왔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상태에서 두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승객 중 다수는 멀미약 복용 여부나 평소의 체력과는 상관없이 뒤집어진 위장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구역질 소리는 멀쩡하던 사람도 덩달아 멀미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독도에 접안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뿐이었다. 다행히 우리 배는 독도에 접안하였고, 독도 땅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충북도의회 식구들은 함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언제 멀미를 했었느냐는 듯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독도경비대에 위문금도 전달하고 버스 안에서 연습했던 ‘홀로아리랑’을 합창하는 내내 가슴 뭉클함이 몰려왔다. 배의 기적소리에 다시 승선하여 돌아오는 길은 파도를 뒤로한 뱃길이라 불상사가 없었다.

충북도의회의 2019년 하반기 연찬회는 ‘독도 땅을 직접 밟고, 그곳이 우리의 땅임을 확인하며, 우리의 발로 다졌다’는 기쁨으로 ‘진한 멀미의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여정’이었다.



경제광복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이 상 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누구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유보다 더 큰 사치는 없다.”

포용하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 다짐하며 적었던 글인데 요즈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자주 되뇌이게 된다. 그 이유는 갑자기 혹 치고 들어온 일본의 경제 침략이나 준동하는 친일 숭배세력들의 근본 없는 도발행위도 그렇고, 우방·혈맹이니 하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받아드리기에 더욱 버거운, 신제국주의적인 행태가 그 원인이 아닌가 싶다.

후안무치한 일본의 아베... 그리고 우방 관계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갈취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는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마음의 여유로움에 한계가 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고 했던가? 그들도 그들이지만 두 나라가 없으면 마치 우리나라도 없다는 듯이 내부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게 보인다.

독립군을 잡아 살가죽을 벗기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일본이다. 그 일본이 강제 징용보상과 위안부 사과 문제를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면 전환용 불쏘 시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우(杞憂)라면 참 좋겠다.

일본은 과거사를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 일본의 아베가 추구하려는 신 군국주의는 그들의 속성상 침략전쟁을 준비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일본은 과거에도 대의명분 없는 무모하고 위험한 침략전쟁을 일삼았고, 야만성과 약탈이 뒤따랐

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의한 부의 축적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꼭 선행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기만전술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상대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전략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

지난 여름 백두산과 용정, 연길 등의 독립군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독립군에게 총을 쏘대는 일본군보다 독립군 물이를 해대던, 일본의 기만전술에 포섭되어 매국활동을 한 친일첩자들의 천인공노할 활동상황이 결코 사람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

아무리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사치라고 한다면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조차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의 강병부국정책이든 기만전술이든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경제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모를 자손만대에 남겨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극일 불매운동은 경제광복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시들해져 가는듯한 극일불매운동,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굴종적인 사고는 지나친 겸손이다. 그 지나친 겸손은 누구에게도 예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7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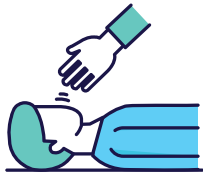
오 기 영 과장
청주의료원 응급의학과

필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덥지근하여 반팔로 돌아다녔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집안 한구석에 있던 점퍼를 꺼내 입었다. 세월이 갈수록 여름,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은 요즘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의 몸은 생리학적으로 혈관들이 수축하게 되고, 이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도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허혈성 심근 손상이 발

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를 보며 남녀노소 모두 심장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미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칼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의식확인

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 확인, 반응이 없을 시 심정지일 가능성 높다 판단한다.



5 인공호흡 2회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 기도를 개방 후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 2회 숨을 불어 넣은 후 코를 놓아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숨을 불어 넣을 때는 가슴이 오르지 확인)



2 119신고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 요청한다. (주변 자동제세동기 있을 시 즉시 사용)



6 흉부압박, 인공호흡 반복

30회 흉부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시행한다. (추가적인 인원이 있을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로 시행)



3 호흡유무확인

쓰러진 환자의 가슴과 얼굴을 관찰하며 호흡 유무 확인한다.



7 기도폐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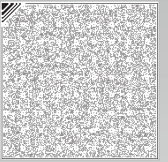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이 돌아왔는지 확인 후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4 흉부압박 30회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서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깎지를 낀 두 손의 뒤꿈치를 대고 성인 기준 분당 100~120회 속도와 약 5~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 (소아 4~5cm 깊이) 흉부 압박 시 환자의 몸과 수직을 만들고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시행,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이 글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학습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모든 충북 도민들의 침착하고 정확한 처치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